

吳 圭 原 論

— 破壞, 그 새로움의 創造 —

김 창 호*

목 차

- I. 머리말
 - II. 몸말
 - III. 맺음말
- 1. 새로움에 대한 인식
 - 2. 표현방식
 - III. 맺음말

I. 머 리 말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現代文學」지에 金顯承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한 吳圭原은 韓國현대시의 모더니즘 계열에 속하여 言語實驗을 계속하고 있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韓國의 현대시는 4.19 이후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경향은 傳統詩와 實驗詩로 크게 구별되어진다. 그리고 전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전면을 통한 현실비판적 특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抒情과 言語實驗이 융합하는 면, 전통적인 抒情과 현실참여의 태도가 결합되는 면, 言語實驗과 現實意識이 결합되는 면 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吳圭原은 위의 세 가지중 세번째 부류에 속한다. 즉, 모더니즘의 특성인 '언어실험'이 현실의식과 결합하여 實驗詩로서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 회원

현실의식은 일상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吳圭原은 일상의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지며 詩的 감수성 또한 예민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현실의식을 지닌 작가는 시대성이나 사회성이나 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있는 성질의 것은 日常이 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소재를 택하고 일상에서 쓰이는 平易語로써 그들의 작품은 꾸며진다. 吳圭原도 現實意識을 지닌 작가로서 이러한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平易語로써의 詩語는 쉬워졌다고 하지만 시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니다. 물론 소재 역시 일상에서 취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吳圭原의 시는 詩語에 비해 그 의미는 보다 심층적이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세계, 혹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형용해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그의 표현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吳圭原 시인이 새로움에 대한 인식 및 모더니즘 계통의 그의 표현방식을 검토하고자 할 따름이다.

II. 몸 말

1. 새로움에 대한 인식

새롭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특정한 비교기준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준설정이 없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일은 무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의를 내리는 일은 어떠한 특정한 비교기준이 없어도 된다. 그러므로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評者 吳圭原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吳圭原 자신이 새로움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새롭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두렵지 않은 낯설음 또는 유쾌한 반역 그러니까 용납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반동.

〈책 끝에——3개의 노트〉 中

이 글은 吳圭原의 시론집 「언어와 삶」 중에서 아포리즘 형식으로 써놓은 글이다. 이 글로서 吳圭原이 새로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물론 이 글에서 특정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이 글이 특정한 것에 비해 새롭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를 내림으로써 새로움에 대해 인식하려는 글의 성격 때문이다.

정의 내리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은 남다른 기질이 있어 보이지만 그럴싸하다는 인상은 지워지지 않는다.

<낯설음>이란 새로움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또한 <낯설음>은 두려움과 두렵지 않음의 양갈래적인 감정이다. 요는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 <낯설음>의 상태를 보고서 생기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하는 차이에 있다.

吳圭原은 현명하게도 양갈래의 낯설음 중 <두렵지 않음>의 상태를 택하였다. 吳圭原이 <두렵지 않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에게나 기존의 양식으로부터는 <유쾌한 반역>이 될 수 있었고 제3자, 혹은 독자들로부터는 <용납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반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렵지 않다는 것은 시에서의 難解性을 배제한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吳圭原은 시가 난해하지 않고 또한 새로운 면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렵지 않음>의 상태를 고려해서 시의 外樣을 쉬워지게 했다는 의미이고 새롭다는, <낯설음>의 상태는 시 자체적인 문제로 해결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내용은 과거 모더니스트와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新奇에 대한 집착으로 대부분 그들의 시는 난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막연한 신기예의 집착이 더더구나 “기존언어의 파괴작업” 속에 놓임으로 진정 풀기 힘든 문구가 되어버렸던 예는 허다하다.

이상 살펴봤던 것을 요약하면, 새로움에 대해서 吳圭原은 적절하고 타당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그의 詩作생활에 활력소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보다 깊게 생각해 하는 요소가 그의 글 속에는 있다.

2. 표현방식

대부분의 시인들은 자신의 詩 속에서 독자들과 혹은 상반되는 모든 것과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 하고 또한 바라고 있다. 그 화합과 화해의 양식이 시인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세속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능적으로 잘 조화시켜 그 화합과 화해를 꾀하고 있다. 吳圭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詩에는 아무 것도 없다.

詩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지만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龍山에서〉 中

이 시는 吳圭原이 지닌 세속의 이질적인 요소가 소재로 되어있다. 어느 시인이든지 자신의 창작행위, 혹은 詩 그 자체에 대해 고백적인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는 吳圭原에게 고백적인 요소로보다는 그와는 異質的인 요소로써 구성되어 있다. 즉 쓰는 행위가 주는 정서적 질감은 吳圭原에게 직접 삶(生)으로 와 부딪친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삶일 뿐이다. 이러한 삶은 독자나 시인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믿어야 하는 사실처럼 吳圭原은 서슴없이 확신에 차 있다. 이 시에서 吳圭原은 異質的인 요소를 자신과 함께 이 이질적인 정서적 질감을 동질화시키려고 한다.

吳圭原 자신이 이질적인 요소를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詩作태도가 自己放棄의인 탓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自己放棄의 덕택이다. 그러면

자기방기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自己放棄라 함은 화해나 밀착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全身으로서의 내던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이질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정화시킬 수 있는 화해의 양식으로서 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自己虐待症과는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자기방기는 常套的인 삶에 못 건디는 열정이며, 또한 사랑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 보아진다.

吳圭原의 표현방식은 앞서도 약간 언급되었듯이 모더니즘이나 초현실주의 특성인 “기존언어의 파괴작업”을 통한 데포르마시옹(변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의 시작태도인 자기방기의 화해양식과 합치하여 체제화 된다.

그 구체적인 표현양상은 解辭的인 면과 虛辭的인 면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 둘만으로서서는 조화를 잘 이룰 수 없어 機智와 奇想의 사용으로 시인은 그 효과를 기능적이게끔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표현양상을 吳圭原은 시에 어떻게 구성시키고 있는가를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解辭的인 표현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사적인 표현방식이라 함은 기존의 文法構造를 해체, 변형하여 재조직·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언어의 질서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상황의 本質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시인 나름의 方法論이기도 하다.

정말로 나는 한 女子를 사랑했네, 女子만을 가진 女子, 女子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안가진 女子, 女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女子, 눈물같은 女子, 슬픔같은 女子, 病身같은 女子, 詩集같은 女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女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女子, 물푸레나무 그림자같은 슬픈 女子

〈한 잎의 女子〉 中

解辭的인 표현이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로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압축과 긴장이 시에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吳圭原의 시 「한 잎의 女子」에 와서는 깡그리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詩語에 있어서도 진밀한 상관관계, 혹은 동질성만을 지닌 상태로 집약될 때의 시만을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

나 吳圭原의 「한 잎의 女子」라는 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시에서 쉽게 눈에 띄는 어휘는 ‘女子’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여자란 어휘는 우습게 얘기하여 눈감고도 찾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자를 소재로 시를 만들려 하면 보다 참신한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궁극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집약될 때 비로소 좋은 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그러나, 이 詩에서는 이미지의 단면들로 산만한 女子의 속성을 좇어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긴축과 집약에 상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격일 수가 있다. 이러한 과격에서 吳圭原의 시의 표현방식을 解辭的이라고 했다.

吳圭原의 시에 또 다른 일면은 解辭的인 표현과 더불어 기지에 차 있는 점들을 들 수 있겠다.

이 世上은 온통 나의 自由 투성이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팔아서 공순이의 옷을 벗기는 自由, 시내라는 말을 팔아서 여대생의 옷을 벗기는 自由, 꿈을 팔아서 편안을 사는 自由, 편한 것이 좋아 편한 것을 좋아하는 自由, 쓴 것보다 달콤한 게 역시 달콤한 自由, 쓴 것도 커피 정도면 알맞게 맛있는 맛의 自由.

〈이 시대의 純粹詩〉 中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자유가 되풀이되면서 작품이 엮여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의 「한 잎의 女子」와 解辭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표현이 거의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이 작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吳圭原의 機智에 차 있는 목소리가 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吳圭原에 의해 戲化되고 또한 변질되어 나타난다. 윤리적인 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유라는 개념 속에서 변모된 모습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자아의 완성이나 효용의 질감을 높이며 노동을 통해 쾌락을 얻는 에로스의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수락하고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편안함을 얻어내며 일시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헛된 믿음의 자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헛된 자유에의 믿음에서 얻은 편안함은 吳圭原에 의해 회화되고 또한 통렬한 풍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吳圭原은 解辭的인 표현양식과 더불어 풍자성을 연결시키고 그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여 이미 자신으로부터 회화된 세계 안에서 반어적 비평의 상태를 유발하게 하고 있다.

천우사 약방 앞길
여자 배추장수 돈주머니로 찾아드는 비
땅콩장수 여자 젓가슴으로 찾아드는 비
사과장수 남자 가래기로 찾아드는 비
그러나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적시고
슬라브 지붕 페인트만 적시는 비
서울특별시 開峰洞으로 편입되지 못한 京畿道 始興郡 西面 光明里의 실록거리는
입술 언저리에 붙어있는 집풀의 몸 몇 개만 버려놓는 비
〈개봉동의 비〉 全文

이 시는 解辭的 표현 속에 機智와 奇想이 모두 사용된 예이다.

비가 되풀이되면서 시장바닥에 득실거리는 갑남을녀의 모습을 적셔놓고 시가지 변두리에 아무렇게나 쏙은 풀포기를 버려놓는다. 〈그러나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적시고 슬라브 지붕 페인트만 적시는 비〉 이와같은 행간 사이사이에 機智와 奇想의 사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技法上的 兩面性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吳圭原 시에 독특한 의의를 지니게 한다. 그 양면성이라 하는것은 다름 아닌 형식의 解體에 곁들여 機智와 奇想이 사용되는 것을 말함이다.

다음은 吳圭原의 시에 나타나는 표현방식 중 虛辭的인 면을 다뤄 보자. 우선 虛辭的인 표현방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자. 허사적인 표현방식은 同語反復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이나 〈빈말〉이 되어버릴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표현은 자기 상상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여 진다. 위의 사실은 다음 제시되는 시를 검토해 봄으로써 단적인 증명이 가능하다.

1

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
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

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어둠을 자세히 보면 어둠의 코도 역시 어둡고

눈도 귀도 어둡다.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스스로 어둠이 되는 길이라 하기도 하고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어둠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사실이다.

2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봐도 역시 어둡다.

3

어둠이 어두운 것이라면,

만약 어둠이 어두운 것이라면

그러므로 결국 어둠 외에는 어두운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친절히 내가 말해도.

사람들은 나더러 말장난한다고 말한다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전문

虛辭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위의 詩 전문만을 인용하여 그 쓰임을 알아보려고 한다.

믿지 못할 사실에 주저함도 없이 나섰다가 비난받기가 일쑤이겠지만 믿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吳圭原의 경우 믿는 사실 앞에서도 주저하며 말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 난처한 상황은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는 것이다.

어둠이 어둡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吳圭原 역시 알고 있다. 누구

나 다 알고 그런 사실들을 믿고 있으면서 吳圭原이 <어둠은~ 어둡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그를 욕한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어둠은~어둡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말장난처럼 들리는지 알아보자.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구태의연하게 얘기하는 데서 그러할 수 있고 둘째, 동어반복에 의한 시인의 虛辭的 표현에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 편의상 두 가지 요인을 찾아내고 있지만, 실은 이 두가지는 복합적일 수가 있다.

다시 작품으로 들어가서, 말장난한다고 비난받는 吳圭原은 쉽게 주저앉으려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吳圭原이 말하는 어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둠의 이미지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밤의 도래로 인한 어둑어둑한 氣運으로서의 어둠이 아닌 까닭이다. 그래서 다시 <어둠은~어둡다>고 하여 강조되고 또한 어둠은 어둡다라는 표현 사이에 기능적으로 <자세히 봐도 역시>라는 삽입구를 잘 조화시켜 말장난이 아님을 강조하게 된다. 이후 吳圭原은 어둠의 정체를 확인해 보려는 의지에서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대전제로 吳圭原의 눈에 비치는 것들은 모두 어둠이 되고 만다. 미의 화신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도, 관념속에 상주해 있으면서 전혀 명암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도 청춘도, 그리고, 어둠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빛의 대명사격인 태양까지도 어둠 날에 보아서는 어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얼핏 보면 역설 같기도 한 이러한 시인의 깊은 관찰은 끝내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벗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吳圭原은 극단적인 양보를 감행하게 된다. 그것은 어두운 게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어두운 것이라면> 하고 가정하여 출발하는 얘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입장을 백팔십도로 바꾼 시인의 의도는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화해와 화합을 바라는 의도이다.

결과적으로 虛辭的인 표현은 자기 상상력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양식으로서 잘못 사용하면 말장난이나 빈말이 되기 쉬운 표현방식이다. 吳圭原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技能的으로 잘 조화시켜 궁극적인 和음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 虛辭的 표현 속에 강한 역설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Ⅲ. 맺 음 말

以上 글의 論旨를 종합하면,

첫째, 現代 모더니스트로 吳圭原은 지금까지 언어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日常性으로서의 현실의식을 지닌 작가이다.

둘째, 새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품은 결과, 그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인식을 하고 있다.

셋째, 그의 표현양상은 解辭的인 면과 虛辭的인 면으로 나타나며, 이에 機智와 奇想의 사용을 곁들여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이 吳圭原의 시에 나타난 표현방식에 촛점이 맞춰져 있던 까닭으로 여러 작품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고로 그의 사상이라든지 시에서의 표층적인 주제라든지 그가 지닌 현실의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 되었다.